

##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축사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동포 선수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 시민 여러분,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든일곱 번째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선수 여러분 모두가 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십시오. 자신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여러분이 쏟아내는 땀과 아름다운 승부에 감동할 것입니다. 함께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선수단 여러분,

체력은 국력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스포츠는 항상 우리의 국력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올해 초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7위를 차지한 것처럼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한 세계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저력을 스포츠를 통해서 또 한번 세계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온 경상북도가 체전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혁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김천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것도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멋진 승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기록도 내주십시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북 도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